



학생회보

제18호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학생회 1994. 3. 32

목차

제언 / 1

- 대학원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

학생회에 바란다 / 6

각 전공보고 / 6

행사보고 / 9

- 신임생 오리엔테이션

기획 / 10

- 역사학연구를 위해 다리는 무엇소까

알려주는 글

- 군사부일체 / 17

담사의검문 / 21

- 어유로울과 새로 온 우리를 찾아서

과학식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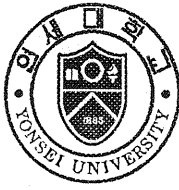
대학원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3년 2학기 대학원 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박사과정생중에서 회장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회장이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임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학생회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기존의 사안에 대해 개입도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고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에 대한 문제를 총회의 토론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학생회임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의 증인은 대학원 학생회가 67년에 만들어진 이후 조직체계의 변화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가면서 현실과 괴리된 체제(필요이상의 조직체계, 학생에 의한 운영)를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회가 그 위상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때 우리는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는 대내적으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현실적 고민들을 공유(학문의 일상생활)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전공과의 학문적 공감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학담제, 회계·조직처의 발전, 신임생 오리엔테이션 및 친영회, 대학원 총 보고, (정기)총회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학생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즉 '과'라는 애두리속에서 학생들



학생회보

제18호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학생회 1994. 8. 22

제언 / 1

- 대학원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

학생회에 바란다 / 4

각 전공보고 / 6

행사보고 / 9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획 / 10

- 역사학연구를 위해 다니는 기관소개

생각하는 글

- 군사부일체 / 17

답사소감문 / 21

- 여유로움과 새로운 우리를 찾아서

과소식 / 29

■ 제언

대학원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3년 2학기 대학원 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박사과정생중에서 회장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회장이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임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학생회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고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에 대한 문제를 총회의 토론안건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학생회임원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대학원 학생회가 87년에 만들어진 이후 조직체제의 변화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현실과 괴리된 체제(필요이상의 조직체계, 타성에 의한 운영)를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회가 그 위상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때 닥치는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는 대내적으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현실적 고민들을 공유(학문과 일상생활)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전공간의 학문적 공감대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학림제, 회지·소식지의 발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 대학원 총 M.T. (정기)총회 등의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학생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즉 '과'라는 테두리속에서 원생들

간의 유대나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동안 대학원의 인적구성이 변화(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의 비율이 같다)되었음에 불구하고, 학생회내에서 석·박사과정생들의 역할은 균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학생회장도 공석이며 각종 행사에 박사과정생들의 참여 내지는 호응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회가 잡무만을 처리하는 석사과정생들만의 조직이 되어 학생회의 대내적인 존립근거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나아가 학림제(각 전공자의 공동연구성과 발표의 장)가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합일점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행사위주의 일회적인 차원에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간의 연결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전공대표간의 회합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회의 대외적인 대표기능과 관련하여 학생회가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단순히 대학원 총학생회에 대해서 '과'를 명목상으로 대표하는 기능만을 해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현 학생회임원들은 학생회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더 나아가 폐지)의견을 모으고 그 대안을 여러가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학문적인 공감대라는 면과 일상생활면에서 보

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대안은 학생회를 완전히 해체하고 '연세사학연구회'로 흡수통합하는 것입니다(학회체제로의 전환). 이는 잡무가 많은 상황에서 학업이 아닌 다른 일들을 피하는 현실인데도 오히려 학생회로 인해 일이 더 생긴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요구(대학원에 대한 인식)가 과거보다도 학문적인 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취시켜 나

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학생회는 당연히 학술적인 측면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것은 대학원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석사과정생들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회의 대표기능을 장기적으로 점차 '연세사학연구회'로 이양하고 더 나아가 양자를 통합하면서 학회체제로

전환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현실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아직 '연세사학연구회'의 위상과 역할(학림지 발간에 그침)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생회 고유의 자치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두번째 대안은 학생회의 대내외적 대표기능을 남겨두고 학생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각 전공대표가 맡는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회의 조직체계를 축소하되 전공대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학생회의

● ● ●
**문제의 근원은
학생회가 87년에
만들어진 이후
조직체계의 변화없이
필요이상의
조직체계, 타성에
의한 운영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는 데
있다.**
● ● ●

조직체계보다 대내적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뿐만 아니라 각 전공대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목상의 직책을 줄여 각 전공대표와 학생회 임원들을 학생회 조직체계 속에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전공대표의 개인적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세번째 대안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회의 문제는 대학원생 전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학생회 조직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회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회를 해체하거나 축소한다면, '과'의 구심점이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회라도 없으면 '과'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이며, 현상황에서는 학생회의 축소나 해체를 논하기 보다는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진

해 나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회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지향, 계획)이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조직이 어떤 명분이나 당

위성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원과 임원들의 열정에만 호소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
**의견은 형식만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용과
 형식을 모두 바꿀
 것인가로 수렴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 ● ●

위에 제시된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점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 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은 학생회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형식만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용과 형식을 모두 바꿀 것인가로 수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1994. 5. 사학과 대학원 학생회

■ 학생회에 바란다

김옥수 (석사1학기)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대학원 생활은 개인적으로 '새로움' 자체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실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선택한 학문의 세계는 그 자체로 나에겐 버거움이기도 했다. 이러한 아직은 학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햇병아리에 불과한 내게 대학원학생회라는 것은 고민의 수준에서 한층 더 높은 세계이다. 그럼에도 나는 겁없이 '학생회에 바란다'라는 제목하에서 무언가를 쓸려고 한다. '그래 이것은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써야될 문제야. 개인적인 한계는 일단 제껴 두는거야.' 이렇게 다짐하니 조금은 안심이다. 나는 평소에 '조직'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나마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다. 특히 톱밥처럼 서로 엉기지 못하는 분자들에 대한 불만이 클 수록 무슨 주문처럼 '조직'에서 문제를 찾곤했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은 이렇다. '조직화되지 못한 개인은 무기력하다.' 여전히 추상적인 명제를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삼아 우리 대학원 학생회로 구체적인 적용을 해 보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조직화 자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만 같은 자존심을 가진 자율적인 예비 연구자로서의 바로 옆 동료가 그려진다. 그리고 '학문'이 가지는 위상 속에서 상대적인 독립과 자유의 혜택이 표상된다. 이러한 표상에서 조직화는 다분히 목적의식이란 강제를 내포하는 포장된 무기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론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 현실로서의 학생회가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하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고민해 보면 분명 이율배반성에 직면할지 모른다. 즉 개인적 만족과 개인외적 실현이라는 두 대립항 가운데서 늘상 뽀쪽한 해결책이 없는 고민에 빠질 것이다. 학생회는 그것이 공적인 조직체인 만큼 개인외적 실현의 측면에 보다 더 주목하는데 그 본래의 위상이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 만족을 희생하는 안티테제로서 기능할 때 반드시 역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니 합의방향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합의 수학적인 정밀성으로만 보장되는 기호논리적인 추상에만 존재한다면 현실로서의 학생회는 '가치지향적'인 감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가치유도적'인 현실적 실현에 도움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학생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학생회는 자기반성하고 회원의 공통분모와 함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생회는 총무가 학생회장을 권한대행하고 그 아래에 '연구부' '섭외부' '편집부'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부에서는 '회지'를 만들고 섭외부에서는 재정을 지원받고 연구부에서는 학림제를 준비 한단다. 이정도 형식이라면 무언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훌륭하다. 문제는 내용성이 될 것이다. 즉 새로운 형식 보다는 우선 기존형식을 보다 유용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중 연구자집단의 특성상 연구부의 역할이 전체 학생회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부의 사업인 '학림제'는 요식적인 학술행사로 전

락된 듯하다. 성원의 저급한 관심, 비상설성, 학문적 완결성에 대한 요구, 소수의 발표회라는 형식 등에서 그 전락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연구부의 한계는 잘못된 학문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연구는 개별적인 능력과 성실성에 의해서 최종적인 답안이 완성된다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개별연구자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 문제의 수준이 이와같다면 공개적인 토론의 마당이 항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별적인 전공주제하에서의 연구가 물론 중심이겠지만 만일 그 연구가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연구밖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상호 관계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동스터디형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전공별로의 수업의존적인 학습방식을 지양하고 주제별로 전공외적인 모임이 폭넓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학적 반성과도 결부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의미도 있겠다. 이러한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선배와 후배, 동료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이다. 일상성에 매몰되지 않는 관계, 문제중심적인 관계가 특별히 강조되겠다. 직접적으로는 자기연구의 성과를 위해서 간접적으로는 총체적인 역사학 자체의 지향성에 접근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심을 둘 일이다. 지금 학생회의 빈곤성의 가장 큰 원인은 개별적인 연구풍토 속에서 도대체 연결고리가 점차 적어진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되기에 연구부의 역할중대가 매우 주목된다.

한국사

1. 각 시기 전공별 공부 현황

- 가) 고 대 사 : 매주 화요일 『翰苑』(張楚金 著) 선독 완료. 『삼국유사』 강독 및 관련주제 발제.
- 나) 조선후기 : 매주 금요일 「조선후기 민정자료」 선독 완료. 사상사 중심으로 강독 및 세미나. 매월 1회 전공자 논문주제 발표.
- 다) 일 제 하 : 매월 1회 전공자 논문주제발표
매주 수요일 일제하 사료강독

2. 전근대 전공답사

- ① 일시/장소 : 94년 8월 6일-8일, 경주일원
- ② 8명의 석사과정생과 1명의 졸업생이 참여하였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선도산 일대와 동남산 일원, 감은사지를 중심으로 진행.
- ③ 무더운 날씨와 약간의 불협화음을 제외하고는 좋은 답사였다는 평.

3. 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 김정신(89, 덕성여대), 유동훈(90), 정수현(86),
조정현(재미교포), 최숙(87, 이대)

4. 신입교수님으로 근현대사상사를 전공하시는 방기중 선생님과 고대사를 전공하시는 주용립선생님이 취임하셨다.

동양사

'94-1학기 동양사 활동 혹은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기의식'의 공유와 그에 대한 방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의식'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현재 연세 동양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동양사 전공자들이 함께 토의하고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려는 실제적인 고민이라고 하겠다.

1학기 동안 이러한 '위기의식'을 화두선으로 하고 각 전공자들은 정기활동을 진행시켜갔다. 우선 전공별 스터디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사 전공팀은 지난 학기 우수 스터디팀답게 일본사 전공자 전원이 모두 참여, 1주일에 한번

신문사설을 강독하고 그밖에 각 전공별 논문구상과 진행과정을 서로 검토해주는 작업을 아울러 하고 있다. 중국 고중세사에서는 楊寬의 『古史新探』에 이어 趙翼의 『二十二史劄記』를 교재로 스터디를 진행,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강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전공자들이 각자의 전공시기에 관련된 부분의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기별로 강독, 타전공자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다음 월례발표회는 2월에 김민경이 <新政시기 初等國民教育制度에 관하여>, 3월에 박경석이 <南京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하여>, 4월에 민후기가 <周의 봉건질서 붕괴의 일고찰--魯의 三桓氏의 作三軍舍中軍을 중심으로>, 6월에는 김성수가 <清朝 新疆 지배정책의 연구>, 김종섭이 <五代시기의 막직관>, 7월에 이종원이 <南朝 奴婢身分層의 變化>, 8월에는 김희교가 <韓中 反基督教運動의 비교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외에 8월 11일에는 중국 복단대 역사지리학과 牟元珪 교수가 <중국 역사지리학의 동향과 전망>을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논문학기의 석사과정생이 논문구상 및 문제제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상과 같은 정기 활동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우선 연희동에 소재하고 있는 '근대사 연구소'(소장 박영재 교수)가 1월에 문을 연 것으로, 동아시아 근현대사 석사 이상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국 현대사 전공의 백영서 선생님이 새로이 연세대학에 취임한 것이다.

또한 이번 학기에 박경석이 석사과정을, 허원 선배가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오봉혁 선배가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아쉬운 점은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신입생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 학기를 마감하며 8월 11-12일에 총수련회를 우이동에 가졌다. 여기에서 각부 활동보고와 '동양사 전공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전반적 검토'라는 민후기의 기초발제를 송영철의 사회로 특별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에서는 우리의 '위기의식'을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선 각자의 입장을 문건화하는 것과 교수님들과의 대화창구를 다양하게 모색할 것을 결의하였다. 토론 후에 차기 전공대표로 신규환을 만장일치로 선발하였다.

서양사

지난 한 학기 동안 서양사 전공자 팀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면, 상당 기간 동안 공전을 거듭해오던 월례 발표회를 정상화시킨 일이라 할 수 있다. 1월 28일 이해민(석사 2)의 발표(「서양 중세 정치의 二元性에 대하여: 敎權의 성장을 중심으로」)를 시발로 해서 3월 6일에는 양일(석사3) 학형이 「19세기 말

미국 민족주의의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4월 3일에는 정용숙(석사 5) 학형의 논문구상 발표가 있었다.(「바이마르 초기(1919-1925) 독일 사회민주당의 봉급고용인층(Angestellte)에 대한 정치적 인식의 전환 : 독일 사회민주당 민중정당(Volkspartei)화 과정의 주요한 계기」) 이어 5월 15일에는 최용찬(박사 2) 동문이 「파시즘 성격에 관한 논쟁」을 통해 논문구상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6월 12일자로 김인창(석사 1) 학형이 「고대 희랍 노예제의 성격에 관하여: 노예제 논쟁과 노예의 경제적 성격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앞으로의 월례 발표회 일정은 6월 말 강은정(석사1) 학형과 8월에 김현철(석사 1) 학형, 그리고 9월 박진빈(석사 1) 학형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서양사 전공자들은 각 전공 분포 및 관련 언어의 특성상 공동 연구나 스터디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번 방학 이후부터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제나 문제를 골라 스터디 팀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93-2학기와 '93-4년 겨울 방학의 자료조사 작업을 토대로 부족하나마 서양사 관계 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인 “酒宴”을 개최함으로써 서로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자 한다.

지난 2월에 김종훈(프랑스사), 박영민(프랑스사) 동문이 석사학위를 받았은 후 현재 프랑스에서 수학 중이며, 이번 '94-1학기 신입생으로는 강은정(러시아사), 김현철(에스파니아사), 박진빈(미국사), 김인창(그리스사) 4명이 입학하였다. 다음 2학기 신입생으로는 구자정(러시아사) 학형의 입학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연구부장)

지난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신입생 6명(한국사 5명, 서양사 1명)과 학생회 임원, 그리고 각 전공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는, 신입생들에게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와 조언을 주는 한편, 신입생들과 학생 대표로 나온 재학생(이른바 “쥔입생”)들이 서로 얼굴 익히기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 1부는 총무의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학생회 소개, 합동 연구실 안내, 각 전공 소개로 이어지는 사학과 대학원의 공식 기구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다. 1부가 지극히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약 10분간의 휴식을 가진 후 이어진 제 2부에서는 좀 더 분위기를 완화하여, 신입생들의 소개 및 선후배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우선 재학생 중 신규환(동양사, 3학기), 김현철(서양사, 1학기) 학형이 자신들의 대학원 생활과 느낀 점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이 날의 하이라이트인 신입생 소개가 있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소개를 할 때마다 호기심에 가득찬 재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많은 질문을 해대,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던 신입생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물론 뒷풀이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행사, 아니 필수 행사였다. 이 날의 뒷풀이는 사학과 역사상 보기 드문 대성황을 이루었다. 1차에서만 피쳐 42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날의 기록은 사학과와 또 하나의 전설로써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 같다. 마치 이 모임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 양 광란적으로 노는 선배들의 모습에 기가 질린 신입생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12시 30분, 카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성화로 마지못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난 사우(史友)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대부분 귀가 길에 올랐는데, 소수의 튼튼한 위장을 가진 사우들은 새벽 3시경까지 2, 3차를 계속해서 마셨다 한다. 요컨대,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체로 성공적이었고, 재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쾌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자아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 같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오리엔테이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별로 참신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뭔가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오리엔테이션의 진행 방식에 일대 혁명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그리고 과연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신입생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새로운 체제와 진행 방식이라는 새로운 외관 속에 알차고 재미있으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는 우리 모두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고심하는 역사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한문 및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을 소개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림원을 소개하며

원재린 (석사4)

1. 한림원 연역

유교문화의 대중화, 儒敎經典敎育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成均館의 부설기관으로서 儒敎思想研究院을 개원하고 동시에 유교사상연구원의 병설기구로서 1990년 4월 1일 翰林院을 설립하였다. 1990년 3월 24일 처음으로 한림원 학정계제 (2년과정) 1기로 50명을 선발하였으며 이후 매년 50여명을 선발하여 현재(1994년) 5기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2년 3월 한림계제(3년과정) 1기의 20명의 선발 및 입학이 있었다. 한림계제는 현재(1994년) 3기까지 선발하여 수업이 진행중이다.

2. 과정 및 선발기준

가) 學正階梯(2년과정)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재학이상
- 선발시험 : 매년 3월 하순경, 기본적인 한문해독능력 측정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학 기 : 2학기 (4월 개강 - 8월 , 9월개강 - 2월)
: 각 학기 중간·기말에 교과과정내 한문해석시험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수 강 료 : 매학기 20만원
- 수업일시 : 월, 수, 금 (오후 6시30분 - 9시30분)
- 교과과정 : 四書(論語·孟子·大學·中庸), 通鑑節要, 諸子百家
- 인 원 : 50-60명
- 장 소 :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 3층
(학교 앞에서 205번 시내버스 20분 소요)

나) 翰林階梯(3년과정)

- 지원자격 : 석사재학 이상, 학정계제 수료자
- 선발시험 : 매년 3월 하순경, 四書수준의 한문해독 능력 측정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학 기 : 2학기 (4월 개강 - 8월, 9월개강 - 2월)
: 각 학기 중간·기말에 교과과정내 한문해석시험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수 강 료 : 매학기 20만원
- 수업일시 : 화, 목 (오후 6시30분 - 9시30분)
- 교과과정 : 五經 (時經·書經·禮記·春秋·易經)
- 인 원 : 20명
- 장 소 :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 3층
- 졸업시험 : 3년과정을 마치고 나면 오경중 자신이 원하는 경전 하나
를 선택하여 100페이지 분량정도를 細註를 포함하여 번역
하여 제출함

■ 일정 및 교과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TEL:764-2412 문의 바람.

다) 林間受業

- 매학기 여름·겨울수업기간중 1주일간 실시
- 좀더 깊이있는 한문연마를 위해 유서깊은 지방의 서원을 순회하며
자연을 벗하며 옛적 선현들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1990. 7. 27 경북 영주 「白山書院」

1991. 2. 2 전남 장성 「高山書院」

1991. 7. 21 충남 논산군 「돈암서원」

1992. 7. 27 경북 청도군 「紫溪書院」

1993. 1. 12 전남 장성 「필암서원」

1993. 7. 24 경남 합천군 「直樹祠」

1994. 7. 19 경북 경주군 「옥산서원」

- 기존의 한문연수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한림원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체류경비는 지원 받음. 다만 각자 왕복차비만
부담)

3. 한림원을 다니며...

본인이 처음 한림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 4월 1일이었다. 물론 이전에 개인적으로 역사학 전공을 위한 한문연마를 위해 獨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해왔다. 그러나 웬지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싶던 차에 공고를 보고 선뜻 입학하게 되었다. 역시 기대했던대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것과는 달리 좀더 실력있고 권위있는 선생님들로 부터 체계적인 한문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4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俗되게도 어떤 이득(何必曰利)이 있었는지 헤아려 보면 우선 四書·五經중심의 교과과정 속에서 한국사·동양사 前近代 전공자들은 반드시 익혀야할 동양의 고전을 짧은 기간이지만 두루 섭렵함으로써 한문공부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서강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는(?) 한문실력을 느낄 수 있다. 일단 교과과정에 편성된 경전들을 走馬看山격이나마 한번 보고 나면 (개인의 차가 있지만) 본인의 경우엔 최소한 '속'文理는 아니지만 '겉'文理는 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文·史·哲 등 관계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슷한 학문계통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다. 이상에 언급한 것 외에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시설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4여년이 지난 지금 민족문화추진회나 지곡서당 등 기존의 한문 양성 기관들을 위협할 정도의 인원과 실력을 겸비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우리 대학원에서는 구문회(석사 3)와 김옥수(석사 1)가 각각 한림계제와 학정계제에 다니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를 다니며

윤 정(석3)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많은 충고를 들었다. 한 선배가 그랬었다. 수업을 듣다 보면 정신없이 3-4학기가 가고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한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삼학기를 마치며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럴때 나는 한가지로 위안하곤 한다.

전근대사를 전공하는 누구에게나 한문은 크나큰 골치다. 때문에 학부에 다니면서 남들처럼 학교 앞에서 하는 서당에도 다녀보고 여름방학에는 특강도 들으러 다니고 그랬었다. 그렇지만 언제나 『논어』와 『맹자』의 앞부분만 몇겹으로 주석을 단 것 이상으로 한문을 꾸준히 배우고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한문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왕 한 대학원

시험 공부를 믿고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시험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몇이 모여서 예상문제까지 만들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까지 하고 있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단이 좋아도 남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예상 문제지를 보여달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유난히 긴 점심시간 동안 북한산에 산책을 갔다오면서 '좋은 등산기회를 가졌구나'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행히도 간신히 입학할 수 있었다. 성적과 번호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나의 출석번호는 38번이었다. 합격한 감격에 반드시 한번쯤은 일등을 해보겠다고 결심도 했었다. 과락의 무시무시한 위협속에서도 3학기가 지났다. 언제나 학교의 답사와 민족문화추진회의 시험기간이 겹쳐서 답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과 조금은 황당한 시험문제를 제외하면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생활은 대체로 만족할만한 것이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부는 연수부 3년, 연구부 2년으로 되어 있다. 연수부의 인원은 공식적으로는 한 학년당 50명, 연구부는 약간명이다. 그러나 시험을 보아 떨어진 사람들에게 청강생으로서의 기회를 주고 있어 1학년 1학기 초에는 거의 7-80명에 달하는 인원이 다닌다. 그렇지만 실제로 삼년후에 졸업하는 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연수부는 일단 한번 한문을 학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문국역을 위한 학문실력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연수라기 보다는 일차 교육기관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연구부는 한문 국역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부를 졸업한 졸업생과 전국각지에서 물려오는 한문의 강자(?)들로 경쟁이 대단하고 시험에 한작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대단한 수준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수부 1학년에는 논어, 한학개론, 대전회통, 통감절요를, 2학년에는 고문진보와 제자백가, 맹자, 대학*중용을, 3학년에는 국역연습과 한중전적해제, 주역, 춘추, 시경, 서경 등을 정규과목으로 배우고 강의가 빨리 끝나거나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강의를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의 두편을 읽었는데, 정치사를 하는 나에게서는 경연에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내가 민족문화추진회를 다니게 된 것은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집에서 가깝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대단히 열악하다. 도심과 구기터널을 잇는 주요 버스인 136번을 기다리며 1시간 동안 매서운 북한산 바람을 맞은 것은 민족문화추진회 졸업작품전에 등장하는 주요소재이다. 때문에 편법으로 재기발랄한 학생들은 불광전철역까지 4명이 연합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동료들을 추위에 놓아둔 채 따뜻한 택시를 타는 것은 한두개월을 다니다 보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

하지만 수원에서 2시간이나 되는 통학시간을 감수하고도 곳곳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문화추진회가 한문번역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께 드리는 도움말

이혜민 (석사 2)

한국에서 불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운다고? 왜? 어떻게? 어디에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무척 기이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언어들을 배우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각자 배우는 이유야 천차만별일 것이고, 필자는 다만 이 글을 통하여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교육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도움말을 드리고자 한다.

아마 불어를 배우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알리앙스'라는 불어 학원의 이름을 들어본 분이 많을 것이다.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韓佛文化財團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 (이하 '알리앙스'로 약칭)로서 프랑스 문화원의 후원을 받고 있다. 알리앙스는 서울과 부산, 대구에 있으며, 서울에는 회현동(신세계 백화점 뒤쪽)과 강남(태극당 예식장 부근)에 있다. 회현동 알리앙스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4호선 회현 역에서 내리면 가장 가까운데, 이 회현 역은 구조가 묘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남대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한참을 걸어야 한다. 2호선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걷다가 —좀 먼 거리이지만 충분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건강상에도 좋다—, 회현 지하도로 들어가 끝까지 걸어 가서 오른쪽 입구로 나오면 된다. 여기에서 길을 못 찾을 경우에는 "택스 호텔"을 찾으시면 된다. 이 부근에서는 가장 크고 번듯한 이 건물 바로 아래쪽에 알리앙스의 간판이 쪼그맣게 보인다. 눈이 나쁜 사람은 지나치기 쉬우니 조심하라. 회현 알리앙스의 단점이라면 교통편이 나쁘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 알리앙스에 비해 가격이 10,000원 가량이나 더 싸고¹⁾ 게다가 남자 선생님들의 물이 훨씬 더 좋다. 또 강남에 비해 개설 과목 수도 풍부하다.

비싼 가격을 무릅쓰고라도 강남 알리앙스를 다니시려는 분은 우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린다. 무조건 태극당 예식장을 물어 찾아 가시라. 이 예식장 바로 맞은 편에 노란 간판의 '에콜 프랑스(Ecole France)'가 보이고 이 학원과 등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 알리앙스이다. 이곳은 불어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그리고 비싼데다가 과목 수도 얼마 안되고 학생이 별로 없어 폐강되는 과목도 많이 생긴다. 하지만 강남의 학생들은 가깝고 편리하다는 맛에 다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불어 위성 방송(France 2)을 매일 테이프와 비디오로 녹음해서 판매한다는

1) 불어 학원은 학생들의 수요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학원을 막론하고 상당히 비싼 편이다. 예를 들어 2달 코스 주 5시간 수업이 14-16만원 수준 정도이다.

것이다. 이 방송 테이프들은 다른 곳에서는—회현동에서도—구할 수 없다. 카세트 테이프가 1,500원, 비디오 테이프가 6,000원. 전자는 당일자로 구할 수 있으나 후자는 선금을 내고 신청 후 1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많은 책을 읽어야 하거나 대학원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알리앙스는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어 교육이 거의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독해를 원하는 사람은 앞서 언급한 ‘에콜 프랑스’(이하 에콜)를 찾으면 된다. 여기에서는 대학원 및 고시 준비반을 비롯해서 유학 대비 고급 독해반, 시사 독해반(르 몽드지 강독) 등 다양한 강독반이 있다. 그리고 알리앙스에서 푸대접(?)을 받다가 이 곳의 친절한 여직원들을 대할 때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일반적으로 알리앙스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강독의 경우와 일부 강의는 더 나은 것도 있다. 그리고 알리앙스의 경우 2개월 코스라 무조건 2개월씩 등록해야 하는데(수업 경과 1개월 후 추가 등록은 가능), 에콜에서는 1개월씩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알리앙스와 에콜에서는 이러한 일반 교육 외에도 유학 상담, 해외 언어 연수 주선, 도서 대출, 뉴스 방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4부터 알리앙스에서는 프랑스어 자격 시험인 DELF와 DALF를 실시하고 있다. DALF를 취득하면 프랑스 대학 입학시 언어 시험이 면제되는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DELF의 A1(제 1단계 시험)부터 A6까지 여섯개 자격증을 모두 얻은 후에야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료는 한 과목당 25,000원. 따라서 바쁜 대학원생들로서는 차라리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것이 시간과 금전을 절약하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 학부생으로서 불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자격증을 차례로 따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서울 시내에 몇 곳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탈리아 연구소(Il Centro di Studi Italiani)’(이하 연구소)만을 접해본 경험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만 소개하려고 한다. ‘연구소’는 이탈리아 문화원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일반 과정과 숙성 과정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과정은 12주 강의로 매주 2회, 숙성 과정은 6주 강의로 매주 4회의 수업을 하며, 수업 시간은 양자 모두 1회 2시간 씩이다. 매 학기 마다 입문, 초급, 중급, 고급의 네 단계 강의를 개설되는데,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입문과정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탈리아인이 강의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강의 진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이 이탈리아인의 한국어도 그리 신통한 편이 못돼서 문법의 자세한 면을 세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로망스어²⁾에 대한 기초가 없거나 이탈리아어에 대한 문법 기초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따라가기에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주로 구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문어는 따로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³⁾ 이탈리아어는 그 문법이 몹

2) 이탈리아어, 에스파니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루마니아어 등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

시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곧장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음 자체는 영어나 불어보다는 훨씬 더 한국인이 발음하기에 편하다.

이 연구소의 가장 좋은 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한남동 단국 대학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좌석버스 773번이나 12번을 이용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단국대학교에서 내려,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푸른 간판이 보이는 갈색 건물을 찾으라. 수업료는 한 학기당 150,000원. 그 밖에 강남 교대 부근의 '우진 외국어 학원'에서 이탈리아어를 가르치고 있다.

3) 예를 들어 인칭 대명사의 경우, 구어에서는 io, tu, lui, lei, noi, voi, loro/Lei, Loro(경어)가 주로 쓰이지만, 문어에서는 io, tu, egli, ella, esso, essa, noi, voi, essi, elle, esse/Lei, Ella, Voi, Loro(경어)가 쓰인다.

군사부 일체

- 군사문화가 일반 사회(대학원 사회)에 미치는 폐해

이석원 (방위 마침, 2학기 수료)

1. 머리말

92년 11월 학부 가을철 답사를 따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전해진 소식은 '신성한 국가의무'를 수행하라는 소집 통지서였다. 그로부터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 2주 동안 나는 학기말 성적을 내기 위해 또 휴학계를 내기 위해 대학원 사무실과 담당 교수님을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뵙어야 했고, 채 마음의 정리도 못한 채 한 달간의 훈련소 기간과 나머지 17개월의 군대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현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행운이고 부러운 방위의 생활이었지만 역시 군대라는 사회는 나에게 충격과 새로운 경험을 주었다. 이제 방위라는 의무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한번은 군대문제와 맞부닥쳐야 하는 남성과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몇 가지 생각한 바를 얘기하고자 한다.

위의 제목을 이상하다 여길지 모르나, 그렇게 느꼈다면 제목을 붙인 나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전근대시대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던 이념의 하나가 '군사부일체'였다면, 현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군대와 사회와 남천(남성)를 꿰뚫어 하나로 묶는 군사문화라고 빠져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내 나름대로 그 특성을 분류하자면, 첫째 기강(군기)을 최우선시하는 위계질서, 둘째 구조화되고 내면화된 폭력(구타, 폭언), 세째는

인간성의 변질 내지는 파괴로 이른바 군대 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지도 모르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18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그것도 방위 근무라는 한정된 경험만으로 전체 사회나 군대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주제를 망각한 처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3년간 군대문화 속에서 함몰되어 어느정도 동화된 경우나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선입견이나 자기합리화를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 문제가 크게는 일반사회, 작게는 우리 대학원사회의 많은 모순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젖어있었던 군사문화의 해독에 우리는 좀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절대적이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보지 말고 군사문화와 전체 사회문화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2. 본론1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으므로, 본론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우선 주위에서 군대를 나온 선배들에게 듣거

나, 농담삼아 후배들은 야단칠 때 쓰는 '군기'라는 말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이 말이 분명히 군사문화의 소산이라는 것을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다. 軍隊紀綱의 준말인 이 말처럼 무서운 것도 없을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조직의 유지와 통솔을 위해 필요한 군기하는 말이 일반사회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것은 낱말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군대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군기가 문제가 되느냐?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라고 한다면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기본요소지만, 그 질서유지의 원리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한편에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군대는 적과의 물려설 수 없는 폭력투쟁을 존재기반으로 깔고 있는 조직이므로 획일적인 종적 구조와 명령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하간의 군기가 절대 필수요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군기의 역할이 끝난다면 문제가 될 까닭이 없거니와 일반 사회조직에서도 그 운영의 원리가 채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조직원리에 이 군대조직이 이용된 것이라는 것은 군필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목적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얹매이고 억압하는 구조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군대조직과 군기의 문제가 위에서 말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종적인 구조하에서는 상명하달이라는 형태가 지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신속한 명령 시행을 위해서는 토의나 반론이 제기되기 어렵게 된다. 피라미드구조에서 상관의 권한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강대해지지만 부하의 경우는 그 권한은 매우 축소되고 반대로 의무만 강조되고 만다. 이 경우 상관이 말아야 할 책임마저도 명령체계하에서 부하들에게 부당하게 강요되고, 일이 잘못된 경우는 애매한 부하가 처벌되거나 서로 책임을 떠다 미는 경우가 허다하게 된다. 나도 이러한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으며 그 가운데 책임을 모면하는 요령마저도 배우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군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 사회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나 군대에서 이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면 분노하거나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상관이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관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고 권한이 늘어나게 되며, 부하의 희생이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점이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남기려 한다. 우리 대학원 사회는 이 군사문화에서 안전한가? 대학원 사회에서 선배의 권위의식과 부당한 권리행사는 없었는가? 우리들의 입에서 군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며 유령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여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유령을 떨쳐버려야 할 사명을 가진 것이다.

3. 본론2

바로 위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구조의 기간이 되고 있는 군기라는 위계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였다. 다음 문제는 앞서서도 어느정도 언급했듯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상관이나 고참의 횡포가 어떠한 구체적 양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구체적으로는 군대내에서도 추방운동을 벌리고 있는 구타이다. 이때까지 군대나 정부에서는 군대에서 구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물론 겉으로 들어나는 구타는 없어졌다. '출퇴근'했던 나는 실제로 구타당한 적은 없었다) 암암리에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군기의 문제는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반사회 내에서 구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원 사회나 기업내에서 구타가 실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폭력이 단순히 주먹이나 몽둥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의 폭력, 조직내의 불이익처분 등도 바로 폭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오히려 실제 폭력보다는 폭언이나 부당한 처분이 더 위력을 떨치는 것이 바로 군대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대학원 사회는 이 문제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사학과 전체)이나 선배의 이름을 빙자하여 개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사항을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폭력이 아닌가? 우리 후배들이 이러한 불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나만 그렇게

느꼈나? 그렇다면 나의 불찰이며 이 글을 찢어버려도 상관없을 것이다.

4. 본론3

마지막 문제는 우리 사회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것이다. 즉 군대에 가야만 하자없는 사회성원으로 보는 사회의 일반적 시각에서 본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성숙한 존재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눈총을 받게 된다. 이 경우는 여성들도 이러한 선입견에 쉽사리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 가야 사람이 되느니, 군대갔다오면 철든다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퍼져 있지만, 내가 본 경우에 있어서 군대가기 전보다 나아진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생활태도, 생각의 깊이, 인간관계)에 속하고 대부분은 그전보다 지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군대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지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흔히 군대 가서 '돌'이 되어왔다던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정서적으로도 비합리적인 조직운영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그러한 것이 몸에 아예 베어버리는 태도 등은 이러한 결과의 소치이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성과 여성간의 문제에 까지 마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남성은 가부장적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비록 머리로는 진보적 생각을 가졌다해도 집안에서는 아내에게 권위를 (강제로라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왕노릇하고 싶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군대시절 배웠

던 '졸병'을 다루는 것이 몸에 베어 있을 경우 '폭력남편'으로 변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대부분이 군대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배운 경우가 상당수 밝혀지고 있다. 비합리적인 군사문화 속에서 우리 남성들의 인간성은 왜곡되고 야수로 키워지고 있다. 군대는 인격도야의 장이 아니라 군대일 뿐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전 그대로 변하지 말기를 기원할 뿐이다.

5. 맺음말

지금 나는 5,6월에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정신이 몽롱한 자의 뉘트리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군대에 아직 가지 않은 남성에게 고하노니, 군대의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입대전의 나의 모습과 전역 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항상 자신을 지켜라. 폭력(폭언)은 결코 배우지 마라. 배워 봐야 마누라 팸 때 밖에는 쓸 데가 없다. 또 욕하면서 배운다고 군사문화의 찌꺼기를 다시 사회에 내뱉지 마라.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 군대갔다는 남성에게 한마디 고한다면, 자신의 행동중에 군사문화의 찌꺼기가 있다면 버리길 간절히 바란다.

모든 여성들이여! 군대가지 않은 남자가 비록 육체 한 부분이 부실하다고 해도 욕하지 마라. 또 군대 갔다는 남자들이 웅졸하고 못되다고 욕하지 마라. 오직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치유해주어라, 따뜻한 사랑으로.

여유로움과 새로운 우리를 찾아서

-경주를 다녀와서-

정수현 (식사과정 신입생)

8월 6일 답사 첫날, 마음도 날씨도 화창하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길동무가 없고 술벗이 없어서 늘 새로운 사람에 대해 목말라하는 경우도 그 나뭇의 흥취는 있는 법인데, 친구가 있고 “답사”라는 뚜렷한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경우야 그 농도를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 더구나 올 여름처럼 “기상관측 이래 최고 더위”, “단군 이래 아마 제일 더운 여름”이라는 언론 특유의 호들갑스러운 과장조차도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매카시즘의 광기가 한반도의 시계바늘을 50여년쯤이나 뒤로 돌려놓은 짜증스러운 경우야 한번쯤 번잡스러운 현실을 뒤로한 채 멀리 떠난다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일일 것이다.

특히 ‘경주’라는 지명이 기억 저편에서 아련하게만 떠오르고, ‘답사’라는 형식의 여행이 가져다 주는 조금은 광기어린 재미를 맛보지 못한 내 경우에는 이번 ‘대학원 답사’가 던져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날의 술기운이 뒷골을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신바람이 나서 가방을 꾸릴 수 있었다. 여행이 가져다 주는 특유의 어떤 해방감과 ‘여름’이라는 계절이 내게 풍기는 독특한 뉘앙스, 그리고 낭만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을 상승시키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알콜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 탓일까? 아니면 함께 떠난다는 답사의 의미를 망각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시간사정, 도로사정 등의 핑계로 기다리기를 포기한 탓일까? 하여간 우리는 한명을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9명으로, 조금은 조출한 여행을 시작했다.

남기고 온 사람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앞서서인지 버스안에서의 표정은 그리 밝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안에서 늘 그렇듯이 나는 곧장 수마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800리를 달리기에는 엔진이 그리 튼튼하지 못한 지 늘 버스는 “승객의 휴식을 어찌고...”하면서 승객을 또다른 구매자로 전락시키고 만다..

“금강휴게소”

정말 뻘질나게도 드나들었다. 고향을 일년에 다섯번만 다녀도 왕복으로 10번, 그것이 10년의 연륜을 더하면 100번, “담배, 가락국수, 음료수, 여기에다 신문, 혹 라이터”까지 포함시키면 도대체 내가 이곳에다 뿌린 돈이 얼마나 될까? 그런 조금은 술이 덜 깬 생각이 뒤죽박죽 떠올랐다.

사람들이 조금은 기운을 찾은 듯했다.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소와

다른 이른 기상시간 때문에 끓였을 배를 채우기 위해 주섬주섬 입에 갖다 붙기도 한다. 속이나 풀려고 먹은 가락국수 -결국 위장은 또 다시 반란을 시작하다. “지겹다 이놈의 가락국수..”

고속버스는 아침부터 설새없이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를 달려 구미-대구를 거쳐 경주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거의 4시간 30분의 지겨운 운행을 마치고 12시경에 경주터미날에 도착했다. “금강산도 식후경” - 언제, 어디에나 통하는 말이지만, 특히 집 떠나오면 명언이 된다. 해장국, 냉면, 콩국수 뭐 그렇고 그런 종류로 허기진 배를 채운 우리는 첫 목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맛이 어떻다”는 등 미식가 저리가라는 품평이 시작되었지만, 경상도 음식이 원래 맵고 짠것이 아니든가? 그래도 고향이 경상도인데, 귀가 간지럽다. 심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질 것 같다. 그놈의 地緣.,

“仙桃山”

답사지를 꼼꼼히 읽지 않은 탓인지, 채 분해가 되지 못한 알콜의 여진이 시작되는 것인지 도무지 “선도산”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겹도록 솟아오르는 지열, 흐르는 욕수, 갈증, 그리고 멍해진 머리, 첫 목적지에 대한 최초의 異見이 시작되었다. “굳이 다 볼 필요가 있겠어? 대표로 한명만 올라갔다 오자...” 뻘한 결론에 뻘한 異論이다. 그래도 처음인데, 모두 씩씩하게 발걸음은 내디딘다. 그러나 그놈의 원망스런 햇볕, 지칠줄 모르고 흐르는 땀, 조금씩 발걸음이 처지기 시작한다. “나이 탓인가 몇 년전만 해도 지리산 종주는 거뜰했는데...” 뉘두리일 뿐이다. 현실은 한바가지, 아니 한모금의 물인데, 2개뿐인 물통은 벌써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되었고, 이제 산을 오르는 것은 물에 대한 희구, 치열한 생존을 위한 동정으로 변해버렸다. 이때쯤이면 옆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는다. 생존이 그러하듯이.

힘들어서 오른 “仙桃山”, 물에 대한 갈망으로 아무런 생각없이 산에 올랐지만 실망이 앞선다. “仙桃山”이라는 지명에서 “武陵桃源”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계곡과 복숭아’ 정도는 기대했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야트막한 산, 그곳에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초라한 집 한채, 그리고 “磨崖三尊佛像”,

왜 하필이면 “仙桃山”인 것일까?

예전에는 桃林으로 우거진 이곳이 어느새 잡목만 무성해지고, 흐르는 계곡은 물이 말라버린 것일까? 아무리 桑田碧海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명이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후세 호사가가 붙인 이름은 아닌 듯한데? 그럴지도 모른다. 중국의 무릉도원이 조금은 현실도피적인 성격이 강하고, 유럽의 유토피아는 선입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物化된 냄새가 물씬 풍긴다. 굳이 그 진한 장면으로 유명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상상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에 반해 우리의 “仙과 桃”란 분명 현실적이면서도 물화되어 퇴색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그래서 조금은 촌스러운 “仙景”인지도 모른다. 없는 것을 힘들여 찾지도 않고, 그저 보이는, 그래서 평범한 곳에서 武陵桃源을

찾았는지도, 신비가 아닌 현실에서, 특권계급이 아닌 초동급부 누군가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樂園. 그래서 이곳에 모셔진 불상조차 근엄하지도 않고, 현실의 고통과 기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모셨을 지도 모를 일이다. 평범속에서 진리를 찾는 지혜라고나 할까?

예술이란 구체적이며 감성적인 예술적 형상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비롯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적 의식이 아니든가? 그 본질적 특성이 논리적 형식으로 서가 아니라 형상적 형식으로 인간생활의 생동한 화폭을 창조하며 인간성격을 묘사하는데 있다면 지금 앞에 서있는 ‘마애삼존불’이야 말로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가식적이지도 않고 인간의喜怒哀樂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친근한 불상이야 말로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釘가는 방향으로 부처를 형상화하며, 현실의 괴로움을 부처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그 순수한 감정이 어찌면 저 불상을 만들었을 것이며, 이곳을 “仙桃山”이라 부르게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

그 현실에 대한 가장 진솔한 표현이 우매한 내방객이 습관적으로 빼어 문 담배조차 불당 앞에서 피우는 것을 금기시하는 신앙심으로 발전했을까? 온갖 풍상을 다 겪은 듯한 이웃집 할머니 같은 보살이 내뿜은 한마디는 퇴속하고, 속세에 찌든 한 내방객의 불손한 언행에 못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진수성찬보다 달디 단 물 공양까지 받았는데, 나는 이 보살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으니, 부처님의 자비를 받기는 애초에 물건너 갔나 보다.

흐르는 땀도 마르고, 마른 목도 그 수분농도가 정상을 찾아 갈 무렵, 꼭대기에 대한 묘한 열망이 “선도산” 정상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다. 야트막하지만 경주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꼭대기, 그러나 잡목만 우거진 정상은 모처럼의 등산객에게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간사한 것이 인간일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간 것일까?

하산길은 그런대로 다리에 힘이 주어졌다. 곳곳에 우거져 있는 이름모를 잡초에 눈길이 주어지기도 하고, 방위시절 힘든 노역 뒤에 선임하사 몰래 사다가 담귀서 흙속에 파묻어 둔 칩주 생각이 나기도 한 것을 보면 힘든 여정은 아니듯 했다. 그렇게 힘들여 오른 산인데...

‘선도산’ 밑자락에는 그리 크지않은(?) 王陵이 꽤 있었다. 천년을隔한 세월의 갖은 풍상을 겪고도 의연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면 권력이란 것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음란죄”로 왕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다는 진지왕, 신라 최대의 정복 군주 진흥왕, 장보고 일화로 유명한 문성왕의 묘가 그만그만한 크기로 웅기종기 모여있다. 진흥왕의 묘가 저 정도라니? 대단치도 않은 저 아래 “김양”의 묘도 저렇게 큰데... 考證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크기로 서, 또는 규모로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呪術에 빠진 후대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왕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권력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을, 저 큰 왕릉을 만들기

위해 힘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 것이며, 죽기는 얼마나 죽었을까? 점입가경인 것은 문성왕릉 만한 크기로 만들어진 어느 조선시대 사대부의 무덤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하려는 듯, 아니면 후대에는 사대부가 아닌 왕이 되기를 갈망이나 하듯이 왕릉을 위압하도록 무덤은 만들어져 있다. 인생이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진시황도 불로장생을 꿈꾸었지만 지금의 무덤은 갈갈이 찢어져 사람들의 눈요기로 변하지 않았는가? “花無十日紅”의 평범한 이야기가 당시에는 전해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권력이란 단어 앞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면 권력이란 단순한 것은 아닌 듯 하다.

피곤함 뒤의 휴식이란 감칠 맛 그 자체다. 그것도 반가운 손님이 함께 한다면 배가 되는 법인가 보다. 후배가 보고 싶어 불원천리 달려온 선배, 아마도 보통의 결심이 아니면 힘든 일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사람으로 인해서 운택해 지고 살찌는 것일까?

사료강독을 끝으로 오늘 공식일정은 끝났다. 술, 술, 술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리워 하는 듯한 이야기 마당, 그렇게 답사 첫날밤은 익어가고 있었다.

8월 7일 답사 둘째 날, 따가운 햇살은 여전히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피곤한 탓일까? 간밤의 이야기에 취한 탓일까? 예상은 했으면서도 괜히 늦은 기상에 기분이 상했다. 남산을 종주하기로 한 일정은 어제의 강행군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지 않는 이른 아침에도 등짝은 땀으로 목욕을 할 판인데, 하물며 햇살이 이글거리는 이 시간에 남산을 오른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객기에 가까운 것이라. 굳이 거수로서 의사를 결정할 필요도 없었다. 암묵적인 동의로 둘째날 답사 일정은 대폭 수정이 가해졌다. 여기에는 답사책임자의 갑작스러운 신체이상도 한 몫을 했다. 그래서 항상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도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인가 보다.

반월성!

회사의 汚名을 몸으로 해결하기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선배님을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고 시내 한복판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이 천년고도의 왕실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반월성이다. 망국의 한을 곱씹으며 한반도를 주유했을 마의 태자가 지금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감회에 젖었을까? 꽃같은 궁녀도, 절대권력의 상징 용상도, 포석정의 화려한 연회도 뒤로 한 채 왕건에게 읍소했을 경순왕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이며, 망국의 태자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박탈당해야 했을 마의태자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단순히 맥수지탄의 감회뿐이었을까? 인결은 간데 없고 우거진 잡초만이 천년의 영화를 조롱하듯 무성하다. 무상한 것이 세월이고 인심인 것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목적지도 모른 채 내리쬐는 태양을 원망하며 남천을 건너 그저 저 산이겠지 하는 심정으로 논두렁을 따라 포장도로에 올라섰다. 동남산 부처골을 거쳐 탑

꿀 부처바위와 보리사 석불좌상을 찾아간단다. 논두렁을 건너면서 풀에 굽힌 피부가 빨강게 변했다. 온실의 화초는 추운 날씨에 면역이 없는 법이다. 내가 꼭 그 꿀이다. 남들은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 혼자만 온갖 추태는 다 부리고 있는 것 같아 겹겹적이다.

제법 출출해진 기분에 어디에선가 풍겨오는 '황구' 굽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인데 계속해서 불경한 일만이 발생하고 있다. 초보자인 내가 보기에도 부처굴 감실석불좌상은 그리 정제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아마도 불교가 한반도로 유입되던 초기의 작품인 듯 했다. 한반도 곳곳이 유적지라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나름으로 일가견을 가진 전문가들이며 그 누구보다도 이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身土不二'가 특별한 격식을 요하지 않듯이 그분들에게도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족한 듯이 보인다. 부처굴에서 만난 중년의 아저씨는 내가 만난 사람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분이였다. 구수한 말솜씨며 그 방면의 지식은 처음 이곳을 찾은 내게 푸근한 고향의 체취를 느끼게 했다. 부처를 모신 석실이 코끼리 모양이고, 전체적인 산세에 비추어 볼때 이곳은 용의 꼬리 부분이라는 해석은 풍수를 전혀 모르는 내게도 일면 타당한 해석으로 여겨졌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유적을 찾고 산을 찾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맛으로 찾아드는지도 모른다.

탐굴 부처바위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흥이 나지 않았다. 죽 불교 유적만 보았다는 조금은 식상한 느낌이 그런 기분을 부추겼고, 지쳐가는 다리는 앉을 자리만 찾게 만들었다. 그럭저럭 찾은 부처바위는 마치 당대 작품을 야외전시장에 모아 놓은 듯 했다. 묘한 기분이었다. 사면의 바위에는 제각기 다른 형상의 부처가 새겨져 있었고 심지어 종까지 큼직하게 바위에다 그려 놓았다. 어떤 신앙심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불교가 융성했다는 고려에도 이런 유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불교가 처음 도입될 때나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만큼 순수하고 열정도 많았을 테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순수했던 신앙심은 퇴색해가고, 그에 비례해 금기사항은 늘어가서 결국은 초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유교도 조선시대에 가면 실학자에 의해서 원시 유교로의 회귀를 부르짖지 않는가? 유럽의 종교개혁은 또 어떻게?

아직도 해는 우리들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제는 부처의 자비보다도 땀을 식혀 줄 한자락 시원한 바람이 희망사항으로 바뀌었고 보리사의 높은 위치는 찾은 내방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확 트인 전망이며, 곳곳에 어울어져 있는 백일홍,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지친 심신에 청량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安貧樂道는 사대부들의 고결한 표상이라 했던가? 번잡한 세속의 모든 물욕을 뒤로 하고 조금은 퇴행적이고, 현실도피적인 감정이 강하다고 해도 그 선비정신이 추구하는 바는 물욕에 찌든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 있는 듯하다. 각박해져 가는 세상 인심속에서 여유를 찾는다는 것이 '있는 자'들의 신선 놀음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여유는 분명 필요한 듯 보인다. 우리들이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현상이 아니라 이면에

감추어진 본질을 추구하는 날카로운 이성일까? 아니면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현실에의 도피일까? 그것도 아니면 현실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는 현실에의 안주일까? 여유가 또 다른 번민을 낳고 있다. 단순한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무기이자 처세술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하여간 보리사의 고적한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느낌과는 달리 물욕을 초월하는 그런 여유로움과 자연과 내가 일체가 되는 듯한 그런 物我一體의 경지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흥취도 잠깐, 편리함과 현대적인 것을 최대의 가치로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 보리사는 흥취한 몰골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공은 순수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여유보다는 딱 짜인, 그래서 규격화되고 물질화된 느낌만을 강요할 뿐이다. 이곳도 이제 결국에는 파괴되고 말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주머니 사정, 그리고 바다 내음을 그리워하는 어떤 본능이 경주를 떠나 바다가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갔다. 경주에서 몇 발짝 떨어진 울산, 현대 물질문명을 대표한다는 울산시가 아닌 울산군의 어느 면소재자 국민학교가 답사 둘째날 숙식을 제공할 장소가 되었다.

저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간, 30년 넘게 산간벽지 훈장 노릇을 해온 아버님의 안식처인 국민학교 교정에 도착했다. 미리 연락을 한 탓에 쉽게 짐을 부릴 수 있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신음하는 도시바람과 달리, 이곳 바람은 갯내음을 동반 한 채 생동감이 넘쳤다. 족구를 하며 텅구는 동료들의 모습속에는 어떤 평화스러움 마저 보인다. 환경이 사람을 순화시키는 것일까? 맹자의 성선설이 옳긴 옳은 이야기인 것일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어떤 성질이 있다는 석가의 가르침도 공허한 가르침은 아닐 것이고... 일정에 대한 파격이 결국은 잘 한 것처럼 보인다.

경주에서 먹은 점심에 대한 실망이 컸던 까닭에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성찬이라도 앞에 놓은 듯 포만감이 몰려 온다. 그 다음은 당연히 바다구경, 동해의 자그마한 포구에서, 그것도 별만 총총히 박힌 이 시간에 동해의 절경을 감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은 벌써 어릴적 꿈속에서나 보았을 낭만을 찾아 바닷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바다임에도 사람들의 감동은 자못 진지할 정도다. 여유, 낭만, 그리운 사람에 대한 애뜻한 연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밀려오는 파도, 산산히 부서지는 포말, 밤낚시의 낭만이 그런 심경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보면, 밤바다는 확실히 다른 경험이다. 달이 있고 술이 있다면 '이태백의 月下獨酌'이 절로 흘러 나올 판이다.

“天若不愛酒 酒星不在天 地若不愛酒 地應無酒泉.....復道濁如賢 聖賢既已飲 何必求神仙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 但得酒中趣 勿爲醒者傳”

시골 국민학교 교정에서의 답사 마지막 밤, 남다른 운취속에서 우리는 몸도

씻고 준비해온 주제토론도 마치고 술잔치로 들어갔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견의 대립이란 늘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인 듯하다. 애정이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애정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대립물의 투쟁보다는 통일이 역사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에도 적용된다고 강변한다면 논리의 비약이라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까? 하여간 답사 마지막 밤은 그러한 묘한 갈등과 통일이 공존하면서 무르익어 갔다.

바다와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풀어보는 욕심중의 하나가 일출광경일 것이다. 그럼에도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운이 없어서 일출을 실제로 본 사람은 드물다. 이런 일출을 우연한 기회에 보았다면 속된 말로 재수 좋은 사람일까? 일출에 대한 기대로 꼬박 밤을 세워 포기 일보직전에 맞이한 일출,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세상사인가? 非夢似夢간에 맞이한 일출이지만 분명 색다른 경험이었다.

8월 8일 답사 마지막 날, 모든 이론은 灰色이고 오직 永遠한 것은 저 푸르른 生命의 나무이다

일출의 흥분된 마음도 가누기 전에 잠에 빠져 든지도 잠깐, 따가운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잠을 켜 채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대왕암-감은사-경주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실새없이 뿔어나오는 에어컨의 냉기가 짙찬 사람들의 입김과 태양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인 만원 버스에서 내려 봉길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문무왕의 수증왕릉에 도착한 것은 기상시간으로 따져 3시간이 넘어간 11시 쯤이었다. 볼품없는 수증왕릉보다 시원한 바닷물이 그리운 것은 인지상정일까? 차가운 바닷물에 대충 발만 담그고 감은사 터로 향한 것은 해가 중천에서 이글거릴 때 였다.

많은 전설을 침묵으로 긍정한 채 웅장했던 터와 두개의 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감은사. “알고 있는 만큼 느낀다?” “느낀만큼 안다?”- 둘 다 맞는 소리인 것 같다. 답사 내내 말은 못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전전긍긍 했던 내게 “알고 있는 만큼 느낀다”는 소리는 치부를 건드리는 말이 되었다. 신라 사람들은, 아니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부처, 절, 승려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었을까? 자비, 윤회, 현실에 대한 부정, 저항, 호국.... 왜구가 경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문무왕의 호국의지가 서려 있다는 이 절터에서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힘든 사역에 동원되었을 힘없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왜구에게 압박을 받는 백성을 사랑하는 국왕의 애민(?)사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절터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건물에 대한 아쉬움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뒤죽박죽의 감상만이 떠오른다. 그러나 3일이나 거의 뜬눈으로 지새운 육체는 정상적인 사고를 힘들게 만들었다. 단지 절터 옆의 구멍가게에서 쪽잠에 들었을 때

들었던, 이 땅 유적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떤 아저씨의 여운만이 남을 뿐,
“무리하게 유적을 발굴, 복원하는 것은 결국 그 유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
겠는가? 있는 것 만큼 느끼는 것이 옳바를 수도 있는데..”

경주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답사의 잔잔한 여운은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또아리를 틔 채 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여운은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혀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것들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

사람들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역사를 공부한다는 당위, 목적, 사명감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일까???

■ 과소석

1. 일 정

93. 12. 2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자료실에서 『경제육전』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94. 1. 4 신년하례식이 알렌관에서 있었습니다.
94. 3 방기중*백영서*주용립선생님이 신임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94. 4. 27-30 선사백제문화권으로 주용립*백영서선생님 인솔하에 학부답사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대학원생이 열화와 같은 참석을 하였습니다.
94. 5. 14 한국사 석사학위 예심 및 박사학위 논문발표회가 인문관 426에서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석사학위 장신, 이지수선배가 박사학위로는 이종범, 최원규선배의 발표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94. 5. 20 인문과학연구소 주최 신임교수발표회에 사학과 신임 3분의 교수님들이 평화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94. 5. 26 이종영 선생님 2주기 하루전에 버스를 대절하여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이희덕선생님의 회고사와 간단한 추념회가 있었습니다.
94. 5. 27 연세대학 원우한마당에 농구와 족구 두종목에 참가하여 총전적 3승2패, 족구 1승1패(8강), 농구 2승1패(4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족구와 릴레이를 실시하였습니다.

2. 결 혼

1993. 12. 18 이태실	1994. 4. 24 송영철
1994. 1. 22 하일식*엄수연	5. 7 진삼범
1994. 3 노혜경	5. 18 강동식
1994. 4. 10 방광석	8. 15 서태원

3. 연구동향(학위논문 및 논문발표)

□ 학위논문

이종범, 『19세기말 20세기초 향촌사회구조와 조세제도의 개편-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유씨가 문서분석』, 1994. 8, 박사논문

- 최원규,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1994.8, 박사논문
 이지수, 「해방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1994.8, 석사
 논문
 장 신,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치안유지법」, 1994, 8, 석사논문
 박경석, 「남경국민정부의 재정 중앙집권화 정책」, 1994. 8, 석사논문

□ 논문발표

- 하일식, 「6세기 역역동원」, 『역사와 현실』 10
 이인재, 「신라통일기 조세수취기준과 등급연-촌락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
 박평식, 「조선전기의 곡물교역과 참여층」, 『역사학대회 발표요지』
 1994. 여름
 김인호, 「이규보의 현실이해와 정치경제 개선론」, 『학림』 15, 1993. 9
 최종택, 「麗末鮮初 地方品官의 成長過程」, 『학림』 15, 1993. 9
 지현숙, 「國民革命期 向警予의 女性運動論과 活動」, 『학림』 15, 1993. 9
 방광석, 「1880년대 초 일본의 국가체제구상」, 『학림』 15, 1993. 9
 최용찬, 「제정 독일 '농촌 급진주의'의 형성 원인-농업보호관세정책
 (1873-1890)을 중심으로」, 『학림』 15, 1993. 9
 최원규, 「1920·30년대 日帝의 韓國農村植民策과 日本人 自作農村
 건설사업 -不二農村事例」, 『동방학지』 82, 1993
 김순자, 「원 간섭기 민의 동향」,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한역연 14세기 고려사회 성격 연구반, 민음社, 1994
 도현철, 「14세기 전반 유교지식인의 현실인식」, 위의책.
 오일순, 「고려후기 토지분급제의 변동과 祿科田」, 위의책.
 조성을, 「정약용」,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 비평사,
 1994.
 주진오, 「김택영·현채」, 위의책 (하).
 김도형, 「정교·장지연·유근」, 위의책.
 방기중, 「백남운」, 위의책.
 이지원, 「안재홍」, 위의책.

